송파구 자원순환공원, 세계가 美치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도시와 通하다

서울시 송파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WHO 안전 · 건강도시 두 개 타이틀을 가진 도시이자 리브컴어워즈를 비롯하여 환경 관련 세계 3개 친환경 대회를 석권한, 환경과 안전부문에 있어 타 기초자치단체의 롤모델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이다.

송파구는 민선 5기 대표브랜드 사업으로 녹색성장도시, 안전도시, 보육교육도시를 지정할 만큼 환경과 안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 '환경인지예산제도' 시행, 복지와 환경을 동시에 실천하는 송파 태양광나눔발전소의 지속적 운영, 버려지는 낙엽을 이용한 남이섬 송파은행길 조성사업 등은 언론사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다.

님비를 핌피로! 주민과 通하다

이 중 올해 가장 주목을 끌었던 사업은 5년의 준비 끝에 전국 최초로 선보인 폐기물 자원순환공원이다. 폐기물 토털 처리체계 구축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부지나 막대한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은 물론 이른바 님비시설이라는 이유로 어느 지자체장도 실행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송파구 자원순환공원은 '공원' 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의 폐기물 처리시설과는 차원이 다른 콘셉트를 가지고 접근하였다. 첫째, 버려지는 모든 것을 자원화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기술을 접목하였다. 둘째, 주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쉴 수 있는 자원순환 테마공원으로 조성하였다. 셋째, 재생가능에너지 및 지속적인 에너지나눔사업을 통해 정부의 녹색성장정책 실현에도 적극 참여하고자 하였다.

모든 길은 로마로, 모든 쓰레기는 자원으로 通하다

2007년 4월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4년 6개월 만에 준공된 자원순환공원은 SH공사 지원금 391억 원, 민자유치 437억 원, 시비 25억 원, 구비 20억 원 등 총 87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다. 이 시설은 크게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선별처리, 대형폐기물처리 시설로 이루어져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은 자원순환공원 전체에서 가장 특징적인 시설이라 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하루 최대 450톤의 음식물쓰레기가 친환경 건조사료로 바뀐다. 이 사료들

자원순환공원 전경

은 닭 · 오리 등 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된다.

2013년 음폐수 해양투기를 금지한 정부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음폐수 처리에 대해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송파구는 이 시설로 음폐수에서 연간 530만㎥의 친환경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음식물 건조에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17억원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에서 유분을 정제한 정제유 생산시설을 갖추고, 연간 10억여 원의 연료와 화학원료 생산이 가능한 것도 이 시설의 자랑이다.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에서는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을 통해 하루 150톤의 재활용품 처리가 가능하다. 특히 이 시설 옥상에 송파 태양광나눔발전소 3호를 건립하고 연간 124MWh 전력을 생산, 판매하여 앞으로 20년간 약 7억 원을 지역 내 취약계층에 지원할 예정이다.

대형폐기물 처리시설은 하루 64톤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파쇄 및 선별 과정에 의해 재활용품은 재활용원료로 활용하고, 목재 및 폐합성수지 등은 시멘트회사의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286㎥ 용량의 빗물저장 처리시설을 설치, 건물 지붕의 빗물을 받아 공원 조경용수로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설계를 하였다. 특히 자원순환공원의 모든 시설들은 각 동 입구에 에어커튼(air-curtain)을 설치해 외부로 나가는 악취를 차단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민자방식을 도입해 시설조성에 따르는 재정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구비 20억, SH공사 지원금 등 391억 원을 건설에 투입하는 한편, 송파구가 직영하는 폐기물 일반처리시설을 제외한 나

자원순환공원 홍보관

머지 3개 시설들은 437억 원의 민자를 유치해 건립하였다. 이는 운영업체가 시설을 준공해 송파구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운영권을 가지는 방식으로, 주민의 세금을 투자하지 않고도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최신 시설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시민과 종사자 그리고 타 지자체 모두 자원순환공원과 通하다

자원순환공원은 단순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열린공원' 콘셉트로 누구나 편하게 찾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고 자원순환과 환경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하고 있다. 때문에 자원순환 홍보관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또한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상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헌옷을 이용한 리폼교실 등 환경인식 실천형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종사자 들을 위한 휴게실, 식당, 샤워실, 체력단련실 등도 완비하여 구청직영은 물론 용역업체 종사자까지 모두의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

이처럼 송파는 과거 대표적 님비시설이었던 폐기물 처리시설을 국내 최초 자원순환 테마공원으로 재탄생시켰다. 이 공원은 송파구의 모든 주민들이 자원순환에 관한 지식을 공유하고 실천방안을 토론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송파구에서 발생한 모든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자원화하여 자원순환 혁신도시 송파를 만들어가는 핵심공간이 될 것이다.

정부의 핵심 정책 키워드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접목시킨 친환경적인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은, 미래환경을 생각하는 환경행정 선도 자치구로서 앞장설 송파의 미래를 더욱 환하게 밝혀준다. 송파구는 향후 유사한 시설 건립을 준비하는 타 자치단체의 롤 모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김영동
서울 송파구청 주무관
kindlove2000@songpa.go.kr